

「추풍령 주거플랫폼 생활SOC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 심사 총평

소규모 생활SOC시설 공모임에도 좋은 안들이 많아서 심사가 어려웠습니다.

제한된 주변 여건 안에서도 다양한 해법의 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넓은 부지의 활용성을 고려한 외부 공간계획, 열린 SOC복합시설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 인접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거주민과 더불어 인근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접근성과 개방성을 주고자 한 제안들을 여러 각도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당선작은 밀도 있는 내외부 공간의 구성과 잠재적인 공공성의 확장이 가능한 외부 공간계획이 우수한 작업이나 규모 면에서 적정한 공사비 안에서 원안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보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 11. 08.

심사위원장 김진숙

<당선작> 이대우건축사사무소(이대우)



김진숙

다양한 내외부 공간구성을 합리적으로 잘 풀어낸 수작으로 보입니다. 주변으로 확장된 외부 공간의 잠재력과 공공성의 확장이 기대되는 안으로 보입니다. 외관 구성에서도 벽돌을 사용하여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조성한 점도 좋아 보입니다. 주변 추풍령 지역의 기후 환경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안으로 보입니다. 공사비 내에서 원안이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김국환

외부 공간과 연계가 좋으며, 내부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 기능의 내부 가구 계획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커먼그라운드 마감재 선정, 주차장 상부 태양광 패널 지나인, 연면적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공간의 다양성을 더 특장짓도록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김영수

본 계획안은 주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배치 구성이 훌륭하며 평면적인 공간 구성 또한 잘 구성되어 있음. 종합적인 고려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임. 다만 외부공간에서 커뮤니티 그라운드 및 커먼그라운드의 영역에 조경계획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음.

박현진

대지의 중심에 건축물을 배치하여 대지의 활용방안 제시가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해 보임. 또한 과하지 않은 매스의 규모, 적절한 스케일로 분절된 것이 주변 대지 상황과 잘 어우러질 것으로 보임. 단 시공면적과 공사비를 고려하면 계획안의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임.

홍종화

본 작품은 주변 현황과 사업의 취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공간을 성격에 부합하게 설정하고 구분하였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또한 각각의 외부 공간이 각각의 내부 공간과 소통할 수 있게 계획하였고, 내부의 입체적으로 일체화된 내부 인테리어 시스템은 동선이자 도서관 서가의 일부로 작동되어 풍요로운 공간을 연출한 것이 훌륭하다.

<2위> 오앤엘 건축사사무소(오명환)



김진숙 주변지역과 조화되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보여지는 제안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유리로 조성된 외피가 많고 서향에 면한 주 공간의 커튼월 계획도 에너지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점으로 보입니다.

김국환 중목 구조계획 및 외부 조경계획이 특색 있고, 완성도 있었습니다. 단, 동심서원 부분의 서향 창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였으며, 공사비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주민시설로서 외부 공간 활용성과 내부 독서 공간이 잘 연계된 구성으로 보임. 다만 임대주택 단지와의 관계성이 부족하고 복합 구조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우려됨.

박현진 주변과 어우러지는 외부, 내부 마당 그 외 연계되는 평면 계획이 우수함. 또한 간단한 평면의 구성은 향후 용도의 변경, 프로그램 변경 시 대처가 유리해 보임.

홍종화 전면 광장과 위요된 마당, 가벼운 회랑과 벽돌의 건물.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점진적으로 교차하면서 서로 확장되며 풍요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다만 임대주택단지, 독서마당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게 느껴지며 건물과 회랑이 일체화되지 못하고 덧대어져 어색한 부분이 아쉽다.

<3위(공동)> 구중정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구중정)



김진숙 SOC복합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가장 완성도가 돋보이는 내부계단 도서관 공간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단조로운 외부 공간 계획이 아쉽습니다.

김국환 삼각형 형태의 평면이 특색 있었고, 태양광 패널을 차양으로 활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흥미 있는 계획안이었습니다. 주차장 진입 방식과 주거 단지에서의 진입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김영수 평면적 구성과 디자인이 간결하고 잘 정리되어 있으나 배치의 계획이 주변 컨텍스트가 고려되어야 함. 외부공간의 활용이 아쉬움.

박현진 명확한 컨셉 그에 따른 명확한 기하학의 계획은 좋음. 다만 계획안 주변과의 대응이나 컨텍스트와 어울리는지 조금 의문이 듭.

홍종화 강력한 삼각형의 매스와 중앙의 계단형 서가, 서가를 순환하는 입체적 공간이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캐노피 타입의 BIPV를 건축물에 일체화 시키고 디자인으로 아주 세련되게 해결하였다. 하지만 주차장의 위치, 단조로운 외부 공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3위(공동)> 이진환 건축사사무소(이진환)



김진숙

지역 SOC도서관으로 작동하기에 충분히 잘 조직된 안으로 보입니다. 치밀한 내부 공간 구성과 주변의 외부 공간을 내부와 연계시켜 다양한 공간과 공간 흐름을 만든 부분이 훌륭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면구성의 완성도가 아쉽습니다.

김국환

신재생에너지 실행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면계획 및 전반적인 계획은 매우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도서관의 단면적 구성이 좋고 외부공간과의 관계가 훌륭하나 그 외 공간과 주변과의 관계가 부족함.

박현진

조형적 간결한 농경지의 모습과 어울리는 차분한 외관. 농경지에서 보이는 썸이 좋음. 공동임대주택과 대지가 매스로 인해 단절된 것이 너무 아쉬움.

홍종화

평면의 구성과 공간감, 조형과 입면이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고 완성도가 매우 높은 안이다. 다만 계획부지를 분절하듯 유희지를 과도하게 계획하였고 건축물 외부 공간과 연계하지 못하고 조망한다는 컨셉이 적절한지 의문으로 남는다.

<5위> 아울러 건축사사무소(문경진)



김진숙

단순한 매스의 구축 방법으로 내부 공간의 적절한 분리와 주변으로 열려있는 세 개의 마당을 동시에 구축한 점이 인상적인 안입니다. 하지만 주변으로 열린 세 개의 외부 공간이 주변 환경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이 아쉽습니다.

김국환

실내공간과 연계된 외부공간이 흥미로웠지만 외부공간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고려되었으면 좋을 것 같았고, 전반적인 디자인은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김영수

조형적 형태가 좋으나 외부공간과의 관계가 아쉬움. 공간의 구성과 형태의 관계가 부족함.

박현진

산뜻한 외형과 그 외형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외부공간의 활용이 기대되는 안임.

홍종화

3개의 매스를 하나의 공간으로 엮어내고 특색 있는 조형으로 풀어낸 안으로 그 완성도가 높다. 하지만 주차장의 위치가 주요한 광장을 차지하게 되고 내외부 공간 간에 연계가 부족해 보이는 게 아쉽다.
